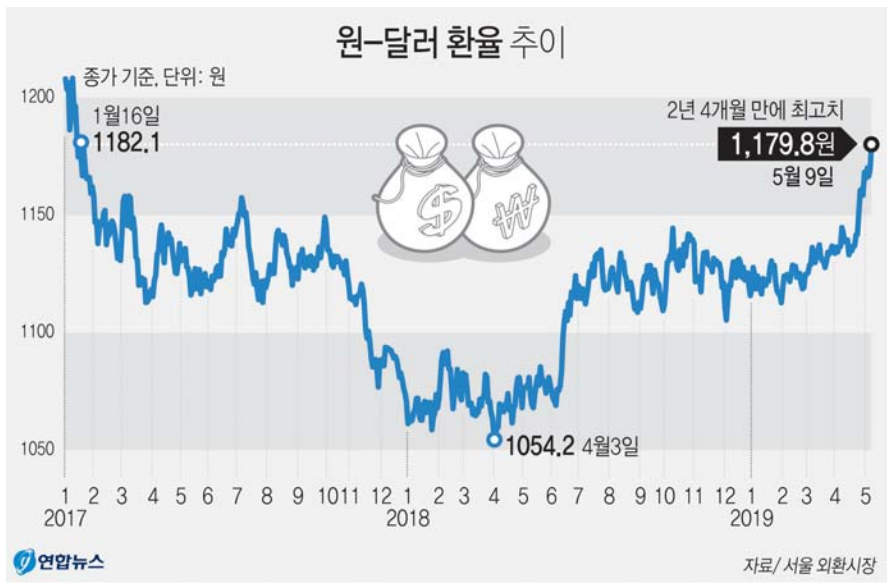
천정뚫린 환율, 1200선 눈앞… '경제펀더멘털' 흔들

美·中 분쟁 격화에 외환시장 미궁
중국 경제 부진땐 韓경제에 피해

원·달러 환율 장중 1182.9원 올라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전망"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격화로 원화값 급락 등 외환시장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200원 선을 터치할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보여준 가파른 상승 곡선이라면 1200원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원화값 하락세 지속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본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가 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82.9원까지 올랐다. 지난 10일 1177.6원으로 시작한 환율은 정오를 넘어서면서 1180원 선을 넘어섰으나 장 후반으로 가면서 하락 반전해 1177.0원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2017년 1월 17일(1187.3원)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녹록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속도라면 환율이 1200원선으로 올라서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2주 전만 해도 1200원 선은 어렵다고 봤는데 지금으로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정훈 KEB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도 "이런 추세면 단기적으로 1200원 터치 가능성까지는 열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중 기준으로 하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50원이나 오르는 가파른 상승 곡선이 당장 수정될 이유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다.

미·중 무역 담판은 합의 없이 종료됐으며 후속일정도 잡지 못했다. 협상을 계속한다는 합의만 있을 뿐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은 미·중 무역분쟁이 기폭제가 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연동이 돼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는 중국 경제의 부진을 의미하고 이 경우 중국 경제와 연동성이 큰 한국 경제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란 관측이다.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 -0.3%를 기록한 것도 우울한 소식이다.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격화라는 또다른 태풍을 만난 형국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을 넘어서더라도 제한적인 기간에 멈출 것이란 의견이 더 많다. 즉,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는 것.

외환 당국 관계자는 "환율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좀 빠르다"고 했다. 다른 외환 당국 관계자는 "결국 원화 약세를 단기적인 이슈로 보느냐 기조적인 이슈로 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시장과 전문가들은 단기 이슈로 보는 것 같다"면서 "외국인 채권자금이 지속해서 순유입되는 것은 결국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신뢰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컨센서스도 2분기를 원·달러 환율 연중 고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3분기나 4분기에 환율이 하향 안정화된다고 보는 견해다.

KB증권은 지난 9일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 그 향방에 대한 두번째 고찰' 보고서에서 "국내 8개 증권사의 환율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기관이 2분기 이후 환율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8개 증권사의 2분기 환율 전망 평균은 1163원, 3분기는 1143원, 4분기는 1095원이다. 일부에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선태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이 내리려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반등하는 지표가 나와야 한다"면서 "수출 같은 지표가 살아나지 않으면 환율이 다시 내려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환율 상승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성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악화한 영향"이라면서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환율 레벨을 한 단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원화 하락에… 달러화 예금·보험 인기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130억 달러
전월 말 대비 9300만 달러 급증
전문가 "안정화때 분할 매수해야"

최근 원화값이 크게 떨어지자 달러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달러화 예금이 늘고 달러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 급락한 만큼 당장 달러를 사들이기보다는 향후 하향 안정화되면 분할 매수하라고 조언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달러화 정기예금은 이달 8일 현재 129억 55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9300만달러 증가했다.

4월에 전월 대비로 2억700만달러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 열흘도 안 된 사이 1억달러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전월 대비로 2월에 3억4700만달러, 3월 9억5100만달러 연이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주요 5대 은행 달러화 정기예금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분	달러화 정기예금 잔액	전월대비 증감액
1월	13,953	655
2월	13,606	-347
3월	12,656	-951
4월	12,863	207
5월8일	12,955	93

/자료=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취합.

달러화 정기예금의 인기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부터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가 올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4월 중순부터 상승폭이 커졌다.

3월까지는 차익 실현 욕구가 커 만기가 돌아온 달러화 예금을 원화로 환전했다고 하면 이후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자 달러화 예금에 돈이 몰리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뿐 아니라 미 달러 환율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달러 주가연계증권(ELS) 등 달러 투자상품도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은 달러 정기예금에,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높은 금리를 원하면 달러 ELS에 가입한다"며 "달러 ELS는 계속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시장에서는 달러로 운용되는 '달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다리 밑, 인기 만점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가 초여름 날씨를 보인 12일 오후 뚝섬유원지에서 열린 아름다운나눔장터가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원화값 낙폭 신흥국중 3번째 커

터키-리라화, 아르헨티나-페소화 이어
한은, 8일만에 원화가치 2.9%나 하락

최근 한 달여 만에 원화값이 주요 신흥국 가운데 정국 불안에 휩싸인 터키 리라화와 아르헨티나 페소화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낙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 외환시장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 남짓 기간 달러화에 대비 원화 가치는 2.9%(달러당 1135.1원→1169.4원) 하락했다.

경제 규모가 큰 주요 신흥국 10개 통화 가운데 같은 기간 달러화에 대비 화폐가치 하락이 원화보다 컸던 통화는 터키 리라화(-9.0%)와 아르헨티나 페소화(-3.7%) 정도였다.

미국과의 무역분쟁 당사국인 중국의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달러화 대비 하락률이 1.0% 수준에 머물렀다.

인도 루피화(-0.6%), 인도네시아 루피아화(-0.6%), 브라질 헤알화(-0.2%)는 하락률이 위안화보다 적었고, 멕시코 페소화(+1.8%), 러시아 루블화(+1.1%),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0.2%)는 오히려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로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신흥국 통화가 대체로 약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들어 원화의 가치 하락이 유독 두드러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캐나다, 韓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 제외

터키에 이어 캐나다도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을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산 철강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의 이같은 조치에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해소됐다는 평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후판과 스테인레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한국산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7개 철강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같은 10월 25일부터 해당 품목들에 대해 TRQ 방식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최종조치에서 한국산이 제외된 것은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지난달 3일 산업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열연·칼라강판 등 5개 품목은 산업피해가 없었으므로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후판·스테인레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중 한국산은 한·캐나다 FTA에 따라 최종조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터키 정부는 지난 7일 한국산 철강과 관련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터키는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잉여물량이 터키로 유입될 경우 자국 철강간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4월 2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같은 10월부터 TRQ 방식으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왔다.

국내 철강업체는 철강 수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